

## 남녀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

최유리\* · 신효식\*\* · 이선정\*\*<sup>1)</sup>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 The 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 and Self-efficacy in Middle School Students

Choi, Yuri\* · Shin, Hyoshick\*\* · Lee, Seonjeong\*\*<sup>1)</sup>

*Major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 and self-efficacy. This subjects were the 576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0.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family strength scores were higher than median(3.00).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scores were highest and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scores were lowest. Also, self-efficacy scores were higher than median(3.00).

Second, family strength and the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Third, the 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was influenced by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And the 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was explained about 29% by this variable. Th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was influenced by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and Financial stability. And th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was explained about 32% by these variables.

**Key words:**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자아효능감(Self-efficacy),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s)

---

1) 교신저자: Lee, Seonjeong, 77 Yongbong-ro, Buk-gu,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0, Fax: 062-530-2529, E-mail: overwhelming@hanmail.net

##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정서적으로 아동기에서 벗어나 청년기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적응해야 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들어서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특목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등 고등학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고등학생들 못지않게 입시나 학교 성적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속도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감의 위기에서 오는 혼란을 겪기도 하고, 새로운 발달과업 및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까지 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를 지니게 되므로(Khu et al., 1995) 이 시기에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통합적으로 접근해 보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자아효능감이란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97). 자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경우가 많다. 자아효능감이 낮은 경우는 어떤 과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끼거나 문제 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하는 등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며 환경에 대처하는데 있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Youn, 1998). 또한 개인에게 내적으로 지각된 자아효능감은 학습활동이나 학습장면의 선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력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 Lee, 2012). 즉 자아효능감이 높은 경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노력하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아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증가한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특정한 과제를 해결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예측해 나가는 것이다. 높은 자아효능감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과제 지향적 노력을 하게 하여 높은 성취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반면, 낮은 자아효능감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여 자신감이 결여되고 성취 지향적 행동을 위축시킨다(Bandura & Schunk, 1981). 이에 아동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에 접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자아효능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아효능감의 중요성은 오늘날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Bacchini & Magliulo, 2003; Jenkins, Goodness, & Buhrmester, 2002; Park et al., 2000).

이러한 자아효능감의 형성에 무엇보다 가정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 최초의 교육의 장이며,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형성의 기본틀이 이루어지는 곳인 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해결과 바른 성장에 가장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Yang, 1991). 가정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으로 가족관계 안에서 느끼는 친밀감과 신뢰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만족스런 일상생활의 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건강 가족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Yoo, 1999). 기본적으로 물질 토대인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가족 간에는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가정,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 역할을 공유하는 가정,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가정, 나아가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해 나가는 가정을 의미한다(Cho et al., 2010). 이러한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성원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ang, 2005; Lim, 2005)는 측면에서 가족 개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Kang, 2005).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는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감정인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Kwon & Oh, 2004),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Nam, 2009; Park & Whang, 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Yun & Lee, 2007),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Oh & Jang, 2007),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의 영향변인(Yang & Ha, 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Kim, 2008),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Jung, Kim, & Park, 2006),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Lee, 2012),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Cho, 2007) 등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중요성을 다루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족건강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드물다. Ahn(2005), Lee(2006), Yoo(2010)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Tak(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Kim(2013)과 Park(2012)에 의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가족건강성의 하위 영역 구분없이 전반적인 가족의 건강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건강성을 살펴볼 때는 전반적인 건강성 정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족 내 어떠한 환경이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Lee & Lee, 2002). 따라서, 앞에서 정의한 가족건강성에 포함된 특성이 변인으로 모두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족건강성 중 어떠한 특성이 자아효능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건강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이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서의 생활 지도와 교과 지도 및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남녀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건강성이 남녀 중학생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가족의 건강성 정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기통제, 자아탄력성 등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Byun, 2009; Hong, 2013; Jung, 2011; Kim, 2009; Kwon, 2003; Nam, 2009; Yoon, 2000). 그러나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에 집중되어 있다(Byun, 2009; Kwon, 2003; Nam, 2009; Oh, 1999; Seo & Kim, 2009; Yun & Lee, 2007). 또한, 가족건강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우는 Park(2012)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은 자아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특히 사회적 자아효능감 보다 일반적 자아효능감이 더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의 특성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과 자아효능감과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부모와

의 의사소통이 친근하고 애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합리적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지각할 때(Shin & Jang, 2001),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기능적일 때(Yoon & Oh, 2005)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은 높았고, Kim, Hong과 Yoon(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취감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면, 자녀의 자아효능감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Lee & Lee, 2002; Oh, 2004). Ko(2007)는 가족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가정에서 출발점을 찾아, 가족의 기능이 증진되고 의사소통이 향상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된다고 하였다. Noh(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자녀의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Cho(2007)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효능감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Jang(200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어머니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Shin, 2005). 이는 자아효능감이 주관적인 지각에 의한 것이므로, 자아효능감을 높이려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감을 갖고 만족해하는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 Lee, 2002).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아

효능감과 관련한 가족건강성에 포함되는 특성이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의 모든 특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Lee(2009)의 연구에서 분류한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에 따라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 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과 ‘가족건강성 전체’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중학생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2개교의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배포된 600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57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y	N(%)
Religion (n=576)	No	332(57.6)
	Yes	244(42.4)
Father 's education achievement (n=552)	Middle school and less	42( 7.6)
	High School grad	306(55.4)
	University grad	192(34.8)
	Graduate and more	12( 2.2)
Mother's education achievement (n=544)	Middle school and less	44( 8.1)
	High School grad	354(65.1)
	University grad	136(25.0)
	Graduate and more	10( 1.8)
Standard of living (n=556)	High	10( 1.8)
	Upper middle	46( 8.2)
	Middle	312(56.1)
	Lower middle	156(28.1)
	Low	32( 5.8)

## 2. 조사도구

### 가. 사회인구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여부, 부학력, 모학력, 생활수준 등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나.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가족들 간에 서로 얼마나 존중하고 애정을 표현하는지,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개인이 생각하는 가족건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4개 영역에 27문항을 추출한 Lee(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존중 및 애정’에 대한 12문항, ‘역할 공유 및 문제해결력’에 대한 6문항, ‘의사소통 및 유대감’에 대한 5문항, ‘재정적 안정’에 대한 4문항으로 신뢰도는 각각 .96, .93, .89, .88이었다. 응답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다.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과제 달성을 위한 자기 조절 능력,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에의 선호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Kim(1997)이 사용한 일반적 효능감 척도 24문항을 바탕으로 Heo(2009)가 10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남녀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건강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남녀 중학생이 인식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

남녀 중학생이 인식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Table 2>와 같다.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은 ‘가족존중 및 애정’이 3.62, ‘역할 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3.39,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3.22, ‘재정적 안정’이 3.43, ‘가족건강성 전체’는 3.47이었고, 여학생은 ‘가족존중 및 애정’이 3.47,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3.16,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3.06, ‘재정적 안정’이 3.30, ‘가족건강성 전체’는 3.30로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등 가족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의사소통 및 유대감’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인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향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아효능감의 경우, 남학생은 3.53, 여학생은 3.43으로 중간값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중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Examining the general tendency of family strengths and self-efficacy

		M(SD)	
Variables		Male	Female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3.62( .94)	3.47( .86)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3.39( .98)	3.16( .82)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3.22(1.00)	3.06( .92)
	Financial stability	3.43( .91)	3.30( .89)
	total	3.47( .87)	3.30( .76)
Self- Efficacy		3.53( .69)	3.43( .63)

Table 3.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Financial stability
Male	.50***	.41***	.39***	.37***
Female	.47***	.43***	.39***	.48***

\*\*\* p>.001

2. 남녀 중학생이 인식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

남녀 중학생이 인식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 간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건강성의 4가지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존중 및 애정(r=.50, p<.001),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r=.41, p<.001), 의사소통 및 가족유대(r=.39, p<.001), 재정적 안정(r=.37, p<.001) 등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도 가족존중 및 애정(r=.47, p<.001),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r=.43, p<.001), 의사소통 및 가족유대(r=.39, p<.001), 재정적 안정(r=.48, p<.001) 등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이 서로 높은 존중과 애정을 보이면서 역할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며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할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았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건강성이 남녀 중학생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남녀 중학생의 자아효능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2단계에 걸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는 남학생이 각각 1.05~6.94, 여학생이 1.03~3.08로 나타나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 계수도 남학생이 1.83과 1.96, 여학생이 2.27과 2.26으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남학생의 자아효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델 I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종교유무, 부학력, 모학력, 생활수준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58, p<.001).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생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27, p<.001).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았다.

Table 4. Examining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family strengths on the self-efficacy by male

Scale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beta$	B	$\beta$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ligion	-.11	-.08	-.10	-.08
	Father academic ability	-.07	-.07	-.06	-.06
	Mother academic ability	.05	.04	-.02	-.02
	Standard of living	.23	.27***	.09	.10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41	.58***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04	-.06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05	-.07
	Financial stability			.02	.03
R <sup>2</sup>		.08		.29	
F		4.58***		10.93***	
DW		1.83		1.96	

\*\*\*p< .001

Dummy variables : Religion(1:Yes, 0:No)

모델 II는 가족건강성 변인인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 재정적 안정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II의 전체 설명력은 29%로 증가하였으며 (F=10.93, p<.001), 가족건강성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21%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변인 중 가족존중 및 애정( $\beta$ =.5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족건강성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생활수준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상쇄되어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남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존중 및 애정( $\beta$ =.58,

p<.001)으로 나타나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많이 나누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남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 I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종교유무, 부학력, 모학력, 생활수준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56, p<.001).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종교유무( $\beta$ =.14, p<.05)와 생활수준( $\beta$ =.2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Table 5. Examining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family strengths on the self-efficacy by Female

Scale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beta$	B	$\beta$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ligion	.17	.14*	.12	.10
	Father academic ability	-.08	-.09	.01	.01
	Mother academic ability	.08	.08	-.04	-.04
	Standard of living	.22	.27***	.07	.09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21	.30***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04	.05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00	.01
	Financial stability			.16	.24**
R <sup>2</sup>		.10		.32	
F		7.56***		16.18***	
DW		2.27		2.26	

\*p< .05, \*\*p< .01, \*\*\*p< .001

Dummy variables : Religion(1:Yes, 0:No)

다. 즉 종교가 있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은 높았다.

모델 II는 가족건강성 변인인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 재정적 안정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II의 전체 설명력은 32%로 증가하였으며 ( $F=16.18, p<.001$ ), 가족건강성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22%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변인 중 가족존중 및 애정( $\beta=.30, p<.001$ )과 재정적 안정( $\beta=.24, p<.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족건강성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종교유무와 생활수준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상쇄되어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존중 및 애정( $\beta=.30, p<.001$ )과 재정적 안정( $\beta=.24, p<.01$ ) 순으로 나타나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많이 나누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느낄수록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아효능감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염두를 두고 자아효능감에 기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가정과 학교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모두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족 존중 및 애정’, ‘역할 공유 및 문제해결력’, ‘재정적 안정’에 비해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평가한 Lee(2012)의 연구에서 ‘가족 간의 존중 및 애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최근 하교 후 학원 수강이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많아 가정에서 부모와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모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An, 2006; Chung, 2009; Ju, 2008; Ko, 2007)이 보고하듯이 자녀의 통합적인 발달과 미래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제적, 시간적 투자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진정 부모다움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효능감의 경우, 남학생은 3.53, 여학생은 3.43으로 중간값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중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효능감이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난 Ko(2007), Park(2012), Kim(2009)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 서로 높은 존중과 애정을 보이면서 역할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며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자아효능감도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 중 가족존중 및 애정과 자아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다른 가족건강성 하위 영역 보다 더 연관되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재정적 안정이 자아효능감과 상대적으로 더 연관되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취감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면 자녀의 자아효능감은 높아진다는 Lee와 Lee(2002), Oh(200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전반적인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Ahn(2005), Lee(2006), Park(2012), Yoo(2010)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건강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존중 및 애정( $\beta=.58, p<.001$ )으로 나타나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많이 나눈다고 느낄수록 남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존중 및 애정( $\beta = .30, p < .001$ )과 재정적 안정( $\beta = .24, p < .01$ ) 순으로 나타나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많이 나눌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느낄수록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Tak(2012)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 중 가족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 회귀분석에서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던 생활수준이 가족건강성을 투입한 2단계 분석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쇄된 결과나 여학생에서 가족건강성 중 재정적 안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난 결과는 실제적인 가족의 경제상황 보다는 중학생에 의해 인식된 가정의 재정적 안정도가 이들의 자아효능감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은 대체적으로 중간값보다 높았지만, 가족건강성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식적인 센터를 통해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가족 내에서 개인적으로 가족일기, 칭찬일기 쓰기,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회의 진행, 혹은 가족 간의 여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기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유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아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존중 및 애정'이었다. 이는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애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사회에서도 고등학생의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감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으므로 학생들의 상담 지도 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효능감을 갖게 하는 데에는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모든 구성원이 일치된 가족정체감을 가지며 가족의 스트레스와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건강한 가족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건강성 요인이 조금 상이하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가정 내 관심과 배려가 성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자아효능감 향상 교육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 기획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 방법에서 편의 표집을 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선표집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못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건강성 변인, 자아효능감 변인을 질문지법을 통해 조사하여 양적조사로서의 한계를 지니므로 심층면접법이나 관찰법과 같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조사 방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에 대한 조사 도구는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자아효능감의 하위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가족건강성,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Ahn, I. Y. (2005).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self-efficacy, family strength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with depression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An, S. S. (2006). *The influence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Future Pl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 nam, Korea.
- Bacchini, D., & Magliulo, F. (2003). self-image and perceived self-efficac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5), 337-349.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01-607.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Byun, J. H. (2009).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Korea.
- Cho, H. K., Kim K. S., Jung, M. J., Song, H. R., Lee, S. M., & Sung, M. A. (2013). *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3rd.)*. Seoul : Shinjeong.
- Cho, H. S. (2007). *Self-efficiency an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rearing according to achievement level of low income househ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Chung, J. S. (2009). *The effect of family cohesion and parent-adolescent's communication styl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of Education, Gyeong gi, Korea.
- Heo, Y. S. (2009). *A study on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Hong, S. 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upport, family strengths and self-control in high school students*. 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Jang, K. S. (2006). *The influence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perceived by the children,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enkins, S. R., Goodness, K., & Buhrmester, D.(2002). Gender differences in early qdolescents' relationship qualities, self-Efficacy, and depression symptom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3), 277-309.
- Ju, A. J. (2008). *The influence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uk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J. Y. (2011).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Jung, O. B., Kim, K. E., & Park, Y. J. (2006).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reativi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3(1), 35-60.
- Kang, H. K. (2005). Family strengths and ego-resilience of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93-102.
- Khu, B. Y., Kim, Y. T., Lee, J. K., Park, H. S., & Gong, Y. J. (1995). 청소년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II.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Kim, H. J. (2009). *A study on the impact which teenagers' perception of the healthiness of their families will have on their self-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Hong, S. H., & Yoon, E,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fficacy,

- and career decision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2), 37-65.
- Kim, Y. G. (2008). *A study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 adjustment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Kim, Y. J. (2013).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of High school students to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Public Administration, Chonbuk, Korea.
- Ko, K. A. (2007). *Influence of family function and communication on teenager's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of Politics & Management, Seoul, Korea.
- Kwon, D. H. (2003). *The study on family health and self-respect perceived by children in adolescent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Kwon, D. H., & Oh, Y. J. (2004).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115-127.
- Lee, J. H., & Lee, Y. J. (2012). The effect of peer mentoring on self-efficacy in the "Invention Technique and Practical Experience" unit of the technology,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s*, 37(1), 65-85.
- Lee, J. Y., & Lee C. S. (2002). Family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1-9.
- Lee, K.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Lee, M. H. (2006). *The family-strength and self-efficacy of gifted student and general student*. Published master's thesis, Far East University, Chungbuk, Korea.
- Lee, S. J.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influencing variables on perceptions of parenthood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243-266.
- Lim, J. A. (2005). *A study on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Nam, Y. J. (2009). *Impact on juvenile's school adaptation by family strengths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by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Noh, H. E.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self-efficacy for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Oh, J. O.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of famil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2), 153-172.
- Oh, M. H., & Jang, Y. O. (2007). Difference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by family strengths and parent's expectation styl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4), 57-74.
- Oh, Y. J. (2004). Father-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self-efficac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201-219.
- Park, E. K. (2012). *The effect of awareness of the healthy family relations on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of Theology, Gyeonggi, Korea.
- Park, M. J., & Whang, K. A. (2007). An impact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0(2), 43-51.
- Park, Y. S., Kim, U. C., Chung, K. S., Lee, S. M., Kwon, H. H., & Yang, K. M. (2000).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satisfaction among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94-118.
- Seo, H. J., & Kim, J. O. (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Shin, H. J.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djustment by the school grade of*

-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u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Shin, H. S., & Jang, Y. O. (2001).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on adolescents'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5), 189-202.
- Tak, S. H. (2012). *Relation of family strength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self-efficacy to their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Jeon nam, Korea.
- Yang, N. H., & Ha, Y. J. (2008). Analysis on the family health factor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1(1), 63-69.
- Yang, S. M. (1991) Special reference to family life education=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welfare program for strengthening family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1), 45-63.
- Yoo, Y. D. (2010). *Influence of study-motivations by family strengths and self-efficacy from the view point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Yoo, Y. J. (1999). A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sound home and healthy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3), 93-102.
- Yoon, M. A., & Oh, Y. J. (2005). Study on parent-adolescent 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4(1), 115-129.
- Yoon, S. E.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self-identif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Youn, Y. S. (1998).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 탐색,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2), 213-238.
- Yun, Y. J., & Lee, M. S. (2007). The influence of family health on the self-esteem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2), 105-122.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은 중간값(3.0)보다 높았고, 가족건강성 중 가족존중 및 애정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둘째,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존중 및 애정이었으며, 이 변인은 남학생의 자아효능감을 29% 설명해 주었다. 또한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가족존중 및 애정과 재정적 안정이었으며, 이 변인들은 여학생의 자아효능감을 32% 설명해 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에는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애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01월 11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02월 03일, 게재확정일자: 2014 03월 06일